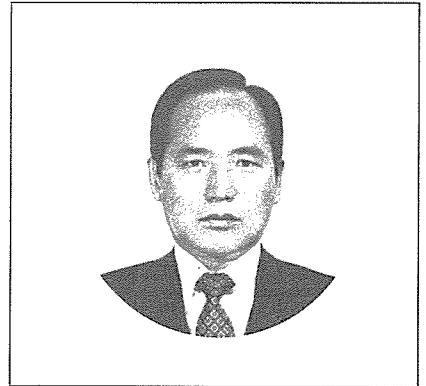


## 環境衛生의 체계적인 연구시급

“우리모두 環境汚染源 제거에 힘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어느 부분도 汚染의 영향권밖에 있는 곳은 없으며, 세계 주요도시 어디서나 오염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염의 피해를 염려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보다 健康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韓國환경위생학회 鄭文植 회장(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은 특히 환경 오염도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과 비례한다고 지적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불씩 하는 스위스나 덴마크 등 유럽 선진국들은 높은 국민소득 못지않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반면 인도, 이태리 등 그다지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은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 바로 생활수준과 비례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분야에 대한 認識부족등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사실 이 환경위생분야만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분야도 없다고 봅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慾求이므로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고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鄭회장은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필수록 이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는 점차 높아지게 마련이라면서 우리가 꼭 86아시아게임이나 88올림픽대회등 국제적인 큰 행사를 의식해서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건



◇鄭文植 회장

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鄭회장은 自然保護運動은 ‘쓰레기줍기’나 ‘오물 안버리기’ 등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선 국민들의 意識改革운동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實質的인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 예방대책 마련과 함께 구체적인 환경오염원 제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이 좋아지면서 쓰레기량도 급증하고 있어 오물처리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意識속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뿌리깊게 박혀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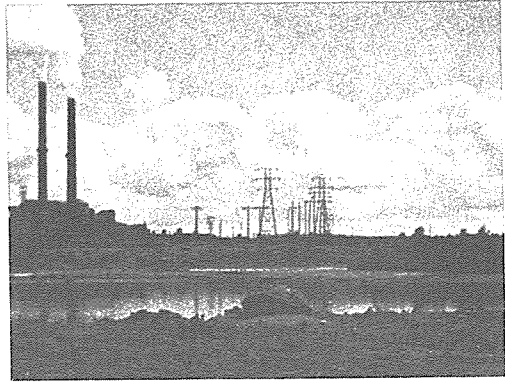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교생들이 알고있는 것의 90%정도만 실천해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鄭회장은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환경위생관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환경관리에 대한 始發은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볼 수 있지요. 고대도시인 폼페이의 상·하수도시설,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유역의 하수처리시설등은 현대와 거의 맞먹는 완벽한 시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이 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鄭회장은 환경관리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왔으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위생학은 사람의 건강, 생존에 피해를 주고 있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인자—특히 物理的인 인자를 관리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지요.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을 찾아내어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하려는 학문입니다』 鄭회장은 환경위생학에서는 건강에 위해를 주는 것—즉 소음, 조명,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등—모든 것을 다루게 되는데 특히 수질오염, 식품오염 등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체계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만큼 학회의 역할 또한 강조되고 있다고.

『한국환경위생학회는 환경위생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기적인 세미나와 학술연구발표등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위생분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며 나아가서는 학문적인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환경위생학을 통한 인류의 복지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 학회는 71년 설



립당시에는 환경보존연구회로 발족했으나 그이듬해 환경위생학회로 명칭을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재 3백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産學協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만큼 산업체와의 유대강화에도 힘쓰는 한편 학회가 앞장서서 이 분야의 연구의욕을 자극시키고 연구과제의 중복없이 효율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鄭회장은 아직까지 기업체를 회원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기업체를 찬조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작정이라고 밝힌다.

鄭회장은 특히 전공분야별로 集談會를 열어 정보교환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환경오염대책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국가를 향한 보건행정의 길잡이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자를 절약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소비하는만큼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이 바로 환경의 오염원이 되므로 에너지절약은 바로 환경오염의 예방대책이 될 수 있지요』 鄭회장은 에너지절약시책을 환경위생적인 측면에서 연결시켜 추진한다면 훨씬 더 實効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깨끗한 내나라 만들기애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權光仁 記>